

“한국서 추억 쌓고 싶었는데”... 준비 안된 ‘악몽의 잼버리’

폭염·위생·보건 관리 허술 부안 새만금 잼버리 현장 가보니

부스 냉방시설 없고 음료 실은 보관...더위에 부실한 식사 삼중고
지난 폭우에 야영장은 진흙탕...벌레 들끓고 화장실 악취 시달려
영국·미국 등 참가국 철수...290여명 참가 광주·전남 17명 퇴영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싶었는데 폭염에 위생과 보건 관리가 허술해 아쉬워요”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5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 내 델타구역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에 대해 아쉬움을 쏟아냈다.

참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을 제한한 야영구역과 달리 델타구역은 각종 홍보관·전시관·체험관 등으로 구성됐지만, 천막 내부에는 참가 청소년들 대다수가 폭염에 지쳐 쓰러져 있었다.

특히 이날은 잼버리 참가국인 영국 단원들이 조기 퇴영을 결정하고 퇴영을 한 날이어서 행사장 내부는 더 어수선했다. 화장실 주변은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 진흙밭으로 변했는데 발이 폭폭 빠지고 곳곳에서 악취도 심하게 났다.

일찍부터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은 스카우트 단원들은 야영지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방을 메고 이동에 나섰다. 대다수는 짧은 상·하의를 입고 선글라스와 우산 등을 이용해 더위와 맞섰지만 섭씨 35도를 웃도는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 중무장(重武装)도 소용이 없었다.

아스팔트 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구간에는 그늘막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단원들은 햇볕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어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잼버리 참여를 위해 한국에 처음 방문했다는 베트남 출신 알렉스(36·Alex)와 뎀(36·Depp)은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함께 있으면 유쾌하지만 덥고 습한 건 어쩔 수 없다”며 “가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서 힘들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등을 호소하며 ‘메디컬센터’를 찾은 이들도 많았다. 야영지 내 한 메디컬센터에는 10분동안 약 20여 명의 환자들이 찾아왔다. 센터에 설치된 의자와 탁자 등에는 참가자들이 더위에 지쳐 반쯤 누워있었고 일부는 센터 내에 설치된 냉방시설 앞에 서서 더위를 식혔다.

센터와 편의점 등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아 온 단원들이 아무렇게나 앉아 쉬고 있었다.
문제는 지난 폭우 때 고인 빗물이 아직 빠지지 않아 곳곳이 진흙탕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각종 벌레들이 들끓어 참여자들의 온몸은 벌레물린 자국 투성이었다.

조직원가 폭염 저감 시설로 야영지 내 60여곳에 설치한 덩굴터널 내부에는 청소년 수십명이 앉거나 누워 더위에 지친 몸을 식히고 있었다. 콜링포그(인공 안개)가 작동되고 있어 터널 내부는 바깥보다 시원했지만 습도가 높아 숨이 턱 막혔다.

일부 천막에는 버스킹과 무대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부스 내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부채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잼버리 기념관 앞에는 300m가 넘는 대기줄이 이어졌지만 냉방시설이 없었다. 곳곳에서는 생수와 이온음료 등이 부족하지 않게 제공됐지만 아이스박



5일 오후 전북 부안군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서 외국인 대원들이 더위에 주저앉아 있다.

스가 아닌 실온에 있던 음료는 미지근하기 보다 따뜻한 수준이었다.

무엇보다도 참가단원들은 화장실 관리를 문제로 꼬집었다. 영지 내에는 성중립 샤워장 등이 설치돼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지만 화장실 내부에는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덥고 습했다.

화장실 앞에는 ‘안이 매우 더럽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 ‘화장지가 없다’ 등의 영어 메모가 붙여져 있었다.

매년 잼버리에 참여한다는 카자흐스탄인 아드리

안(17·Adrian)군은 “덥고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화장실까지 자주 막혀있다 보니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며 “제공되는 식사도 불만이지만 이마저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미국·싱가포르 참가국

들은 전부 철수했다. 6일 광주·전남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도 289명(광주 143명·전남 126명)이 참가했지만 이날 기준 17명(광주 6명·전남 11명)이 퇴영했다.
/부안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영광통사거리 ‘우회전 신호등’ 없앤다

출퇴근시간대 정체 부작용

광주시 광산구 영광통사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철거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영광통사거리의 ‘공항→금호타이어’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지난달 철거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광산구 송도로입구 교차로, 광산구 삼부대로 영광통사거리, 서구 천변좌하로 극락초교 부

근, 북구 임방울대로 어린이교통공원 부근, 북구 하서로 중외공원 부근 등 5곳에 우회전 전용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설치 이후 3개월간 영광통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오히려 교통 혼잡을 방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근 시간대 150m 이상 대기 행렬이 늘어서는 정체가 이어지면서 이 일대 출퇴근 운전자들의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은 영광통사거리의 신호등을 철거하고 유사한 교통환경을 갖춘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머지 4곳의 우회전 신호등은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교통조건이 유사한 신가지구 입구, 옥동 도시철도 차량기지, 송암공단 신에원, 효덕초교, 삼각초교, 동부교육지원청, 동운고가 일원 등 교차로 7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 등대 4곳 ‘문화유산’ 지정

50년 넘는 세월동안 전남 지역민과 함께한 등대 4곳이 정부의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6일 “고흥 소록도등대와 신안 암태도등대, 완도 어룡도등대, 진도 하소도등대, 통영 한상항등표 등 전국의 5개 등대를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흥의 소록도등대는 1937년 당시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강제 노역으로 건립됐으며 일제시대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신안의 암태도등대는 1913년 지어져 벽돌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립 당시의 기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도의 어룡도등대는 1910년 우리나라 초기 콘크리트 타설 기법으로 지어졌으며 당시 항로표지 건축 발전상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진도 하소도등대는 1909년 지어져 탐 입구의 바로크식 아치를 통해 건립 당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

학생 싸움 말린 교사 무혐의 처분 불복

학부모, 재정신청 제출

학생들 간 싸움을 제지하려 책상을 넘어뜨린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재정(裁定)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 직접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기재한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윤씨는 지난해 4월 학생들 간 싸움을 제지하다 교실 책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이후 1년여 간의 수사를 받은 윤씨는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부모가 지난 5월 31일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

시 전국의 교사 등이 검찰 앞으로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며 탄원서 1800여장을 보내기도 했다.

학부모는 이와 별도로 윤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명목으로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지만 이 또한 법원에서 기각됐다.

21년째 교단을 지낸 윤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올해 학급 담임에서 배제됐고, 수면장애와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정신건강 상담도 받고 있다.

윤씨는 “검찰과 법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도 학부모는 각종 수단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교사가 대응할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부모의 ‘아니면 말지 하는 식’의 신고가 교사에게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까지 지장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어 “교육당국 차원에서라도 교사들의 교권침해·수업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고한 신고를 하는 학부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 사건을 계기로 무고한 교사들이 없도록 끝까지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